



영주 부석사는 전통건축의 베스트원으로 꼽힌다. 왼쪽에 자리한 안양루와 오른쪽의 범종각이 2개의 엇갈린 축선을 이루고 있다.

건축은 삶이고 역사다



김제 금산사.

한국 전통건축에 숨어있는 과거정신 읽기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 1·2·3
김봉렬 글·이인미 사진
둘째개 | 각권 2만5000원

시대의 모습을 담은 그릇이요, 깨달음과 생활이 만든 환경이며, 인간의 정신이 대지 위에 새겨놓은 구축물인 건축. 역사를 통해서 건축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건축가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가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를 펴냈다.

저자는 한국의 전통건축에 대해 한마디로 "옛 사람들의 삶과 삶의 산실이며, 당시에 충실하게 지어졌기에 영원할 수밖에 없는 고전(古典)"이라고 말한다.

그는 "얕은 깨달음이며, 삶이란 변화이고, 위대한 건축은 그 깨달음과 변화의 내용과 과정을 담고 있다"며 "영원한 건축은 그 깨달음을 전달해주어 또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하며, 항상 변화하면서 또 다른 삶을 얻게 한다"고 설명한다.

저자처럼 건축속에 숨어있는 과거의 정신을 읽어낸다는 것이 현재의 우리 삶과 건축에는 어떠한 의미를 줄까?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의 건축도 여전히 정신활동의 결집이며, 건축이란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공간과 형태로 표현해 내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현재의 물음에 답을 준다고 한다.

즉 주어진 조건을 충실히 풀어나가는 성실함,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고 즐거워 하는 건

강함, 일상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실용성, 평범한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깨달음들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의 해답이자 의미라는 것이다.

한국 전통건축의 의미와 논점을 지닌 대표작과 주요 테마 25가지를 집대성한 주요 내용을 들춰 보자.

1권 '시대를 담은 그릇' 편에서는 역사적 관점 즉 시대성과 지역성이 부각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다. 먼저 '세계적인 유산의 또다른 이야기인 불교사와 석굴암'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답게 최근까지 끊이지 않는 관심과 지식인 김대성과 신라의 국제성과 과학성이 만들어낸 석굴암과 불국사의 시대적 성취를 만난다.

또 '문화전환기의 건축'으로 마곡사를 소개한다. 고려시대 원의 지배와 문화수입의 상징인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말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강당이 엮여있는 신평 마곡사를 통해 문화전환기의 건축상을 읽는다.

'백제계 건축의 평지성, 미륵사와 금산사'에서는 백제권의 미륵신앙과 그 이상향인 율화산의 세계를 구현한 대표사찰 미륵사와 금산사의 입지적 건축적 특성을 통해 백제인의 신앙과 건축정신을 만나본다.

'장인정신과 공예적 전통, 전북의 작은

사람들'에는 백제시대 전북지역 건축의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것이 17세기 조선에까지 이어지는 지역적 특성을 통해 그 지역 건축인들의 장인정신과 공예적 전통을 밝힌다.

2권 '얕고 삶의 공간'에서는 미륵대원을 둘러싼 좌절된 영웅들의 전설과 폐허에 남겨진 미완성의 사찰을 통해 전설의 모습과 완성된 석굴사원에 대한 상상적 대리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 옛모습을 큰 변화없이 간직하고 있는 소박한 아름다움의 고찰 선암사의 변화와 역사, 그리고 살아있는 수도공간을 면면히 살피고 있다. 이 장에는 폐허를 폐허답게 보존하기 위한 지혜와 해안도 역할에 대해 다룬다.

3권 '이땅에 새겨진 정신'에서는 한국 건축 전반에 흐르는 정신활동에 대한 제재를 추적하고, 그 정신을 어떻게 체계화 조직화 되어 건축물이나 공간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담겨있다.

특히 '불교건축이론'이라 평가받는 통도사와 '한국건축 베스트원'이라 불리는 부석사, '살아있는 목조건 박물관 봉정사'에 주목한다.

김봉렬 교수는 "이 책을 통해 건축인들에게는 전문적인 깨달음에 도움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한국문화 전반에 깔려있는 정신활동의 중요함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네티즌강추

철저한 실험정신으로 살았던 작가 사무엘 베케트

30분에 읽는 사무엘 베케트 랜덤하우스중앙, 스티브쿠츠지음
사무엘 베케트는 우리에게 <고도를 기다리며>로 알려졌다. 실상 그의 문장은 훨씬 어렵다. 사무엘을 소개하는 이 책은 그의 난해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난해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역시 글은 작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맛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글에 작가의 삶과 경험이 배어있기 때문이겠지만, 사무엘과 같이 어려운 작가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이 책을 보면서 조금은 알듯 하였다. '고도'가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거기에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작가의 말은 그의 작품이 추구하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대변한다. 철저히 실험적 정신으로 살았던 작가의 작품은 결국 모든 것을 독자의 몫으로 물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책과 함께 다시 사무엘의 책을 펴기로 하였지만, 음악적 특성, 상징성, 행간을 읽어야 하는 의미들을 염두에 두고라도 그의 글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책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작가에 대하여 이처럼 정리된 자료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마치 문학수업을 받는 것과 같은 책이다.

(김중선, booktopia.com)



절망의 나락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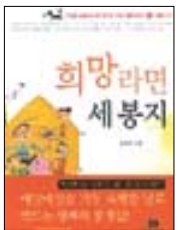
희망라면 세봉지 휴먼하우스, 김옥숙 지음
이 책은 그러한 좌절, 절망 또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희망을 일구어 내고 또한 희망을 바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

송곳에 찔려 실명을 당했으며 결국 그 송곳으로 짐자를 만들어 낸 루이 브라이의 회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게 됐다. 가난으로 인해 불어뻑을 구워야 하는 삶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불어뻑을 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담은 불어뻑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마음을 희망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림을 사랑하고 그리는 것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오손손이 잘린 사고를 당해 좌절했을 때, 구주화가의 편지를 받고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다시 마음먹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아직 절망하기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 소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세를 배우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하고 자신의 현재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귀중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madeby1, book.naver.com)



책속의 밑줄긋기

○...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 진실은 꼭꼭 숨겨 마련이다. 반드시 동조를 얻어야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신호를 내보낸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언제 어느 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편향된 생각에 희생이 되는 것이다.

정치가 부류는 대체로 신봉받지 못한다. 그들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필요로 한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설 곳을 잃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집단의 기본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집단의 청진을 얻기 위해서는 저런 말을 한다. 말하는 사람이 모든 이의 마음을 들 요망으로 교묘하게 이랬다저랬다 입장을 바꾸면 진실은 있을 수 없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72쪽에서, 21세기북스, 웨인 다이어 지음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포공시)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가입 | 복용100일후 발생시 300% 배상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지하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 운(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선)으로 인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중, (구토), (눈의 이상) 등이 나타난다면, 10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에게 뇌졸중(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응시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험 할 수 있습니다.
◆ 지하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 없이 분포된 아직 단 한번도 발병한 시 ◆ 지하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 없이 분포된 아직 단 한번도 발병한 시 ◆ 지하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 없이 분포된 아직 단 한번도 발병한 시

◆ 이런 증상이 뇌졸중(중풍)을 경고하는 위험판대행위를 알립니다.
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런 **1box에 3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께 호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1인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 주원료: 야생 배위 추출 액상과 생애살 추출액, 곡류 추출액, 풀시노는 천연의 알카리성 식품으로 꾸준히 응용하면 산성화된 체질의 개선과 면역력 증강에도 유용하고, 이미 뇌졸중 전조증세를 경험하신 분은 더 늦기 전에 지속하여 응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본 요법은 제조과정 중에도 일체의 금속으로 된 기계나 기구가 쓰여지면 안되므로 흔히 일반 제조업체에서 보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제조기계설비와 규모가 큰 공장설비로 제조되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만으로 처리하여 생산 됩니다.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2)3437-828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누로 산사제기 드림에서 직접 만드신... **산수 조청**

◆ 산수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수 조청은 산천 조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수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훗이오르지않은 **산수 참죽 조청** 1.2kg
이월, 냉동,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영,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수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은간장을 새끼배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수 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수 조청원**

바오보인의책 | 대한문재원선사님역사 / 조가

전강대선사님의 인가계자 대한문재원선사님 역경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오보인 전통목 전5권
바오보인 부분관
바오보인 박암록
바오보인 천부경
바오보인 금강경
바오보인 신심명
바오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오보인 증도가
바오보인 만야심경
바오보인 선가귀감
영원한선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오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복되도 세상을 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삼에 찻는 회다

<대원문재원선사님의선(禪)법문안내>
대원문재원선사님의 견면목을 엿볼 수 있는 금강경 서울법회가5월7일 일요일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법회입니다. ☎(02-522-0122
----- 전국 대원문재원선사님 법회 -----

◆ 강주선인
선문염송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062-944-4088
◆ 부산선인
금강경 /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051-545-2460)

www.zenparadise.com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